

TEXTILE FASHION TREND ISSUE

DYETECREVIEW 다이텍섬유리뷰

Mix 2 types of capsules

FASHION-AI

패션 스타트업도 AI에 폭 빠졌다

창작 과정 돕는 도구로 부상

최근 패션업계의 AI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디자인 기획부터 매장 운영, 마케팅, 고객 상담까지 전방위 AI 솔루션을 제공하며 기존 업무에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다.

특히 패션업계는 트렌드 변화 주기가 짧아 신상품 기획부터 생산·유통이 빠르게 전개돼야 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는 물론, 데이터 기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디자인은 트렌드 분석과 레퍼런스 수집, 아이디어 스케치 등 수작업 비중이 높고 시간 소모가 큰 영역으로 꼽힌다. 특히 중소 브랜드의 경우 인력과 예산이 제한적인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디자인 작업 방식이 필요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자인 어시스턴트가 창작 과정을 돕는 유용한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패션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은 고객 경험과 구매 전환의 핵심으로 전략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영상처리 AI 스타트업 메이아이의 방문객 데이터 분석 AI 솔루션 '매쉬(mAsh)'는 매장 방문객의 동선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 요일·시간대별 방문객 수를 98%의 정확도로 측정, 지역 및 상권 특성에 따른 매장 운영 전략 최적화를 지원한다.

상담사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AI가 적극 도입되고 있다. 채널코퍼레이션은 안다르에 AI 상담 솔루션 '채널톡'과 '알프'를 도입하고, 상담 유형을 세분화해 자동 응답 체계를 구축했다. 반복적인 고객 문의는 AI가 직접 처리하도록 설정했으며, 그 결과 올해 1월 기준 전체 상담의 61%를 AI가 상담사 개입 없이 해결했다. 이는 한정된 인력으로 반복 문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보다 복잡한 문의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드는 배경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패션 산업은 트렌드 대응 속도와 현장 실행력이 중요한 만큼, AI 기술이 부수적 요소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뒷받침하는 핵심 운영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AI 기술 고도화에 따른 현장 적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기존 업무 방식이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젠 속도보다 방향 착해진 '패스트 패션'

패션 업계, 친환경 투자 늘리며 차별화



스페인 마드리드의 대표 쇼핑 거리 '그란 비아(Gran Via)'. 자라를 비롯해 망고, 유니클로, 프라이마크 등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매장을 찾는 고객들로 붐볐다. 이들 매장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곳곳에 설치된 헌 옷 수거함과 친환경 정책 안내문이었다. 새 옷을 구매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져온 장바구니에 담은 헌 옷을 수거함 앞에서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친환경 정책을 안내하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패션·럭셔리 산업 전문가의 40% 이상이 지속가능성 투자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봤으며, 유럽연합(EU)에서 의류·섬유 폐기물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게끔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추진되면서 기업들은 이 같은 변신에 속도를 냈다. 자라를 보유한 인디텍스는 2016년부터 '테이크 백' 프로그램으로 중고 의류를 수거·기부하고 있으며, 재활용 섬유 사용 비율도 33%로 증가했다.

H&M은 중고 의류 섹션과 온라인 플랫폼 '셀피'에서 중고품을 판매하고 있고, 유니클로는 '리유니클로 스튜디오'에서 수선·업사이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세 브랜드 모두 내구성 높은 제품과 클래식 디자인을 통해 '슬로패션'을 지향하고 있다.

자라는 '스튜디오 컬렉션', H&M은 '프리미엄 셀렉션'을 통해 고급 이미지를 강화했고, 유니클로는 '퍼펙테크 아우터'와 '맞춤 제작 양복' 서비스, 꽃집 운영 등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들은 최근 소비 침체를 뚫고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자라를 보유한 인디텍스와 유니클로를 보유한 패스트리테일링은 지난해 각각 7.5%, 12.2%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FASHION TECH

"AI로 프리뷰인서를 업체 화보 제작?" ... 섬산련, 라온버드와 협업

촬영한 것 같은 디지털 룩북 제작, 총 24컷 이미지와 1개 숏폼 AI 영상 제공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 (주)라온버드와 협업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PIS 2025 참가업체의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으며, 참가업체가 자사의 소재로 만든 의류 샘플 착장 사진을 제출하고 원하는 모델 유형 및 배경 스타일 등을 선택하면 AI를 활용해 맞춤형 디지털 룩북(화보)이 제작된다.

AI는 제출된 사진을 바탕으로 실제 모델과 포토그래퍼가 스튜디오 또는 실외에서 촬영한 것과 유사한 수준의 디지털 룩북을 제작하며, 총 24컷의 이미지와 1개의 숏폼 영상으로 구성되어 제공된다.

섬산련 관계자는 "본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라온버드는 2017년에 설립된 생성형 AI 전문 스타트업으로,

자체 개발한 이미지 생성 기술 '라온젠(LaonGen)'을 통해 실제 촬영에 준하는 고품질의 콘텐츠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은 이미 국내 주요 패션기업들을 중심으로 활용되며, 높은 수준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입증받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완성된 디지털 룩북은 PIS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노출될 예정이며, 참가업체의 대표 아이템 홍보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전 바이어 매칭 시스템(BMS)과 연계하여, 전시회 현장을 직접 찾지 못하는 바이어에게도 참가업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시회 방문 예정인 바이어에게는 사전에 관심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EXTILE

“폐기된 군용 낙하산·텐트가 원피스로”...

코오롱FnC 레코드, 산업 폐소재 재해석한 전시 선보여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레코드가 산업 폐소재의 순환 가능성과 재해석을 주제로 한 전시 ‘리콜렉티브: 머터리얼스(RE; COLLECTIVE: MATERIALS)’가 5월 15일 진행되었다.

현장 관계자는 “이 곳은 모든 제품들은 생산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된 에어백용 소재와 군용 소재 등을 활용한 것”이라며 “소재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옷과 패션 소품으로 재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독특한 점은 옷마다 붙어 있는 번호였는데, 어떤 옷에는 ‘4’라는 숫자가, 다른 옷엔 ‘6’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남은 소재를 활용한 만큼 같은 디자인이 6벌 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시는 총 네 가지 산업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육군 및 공군과 협업해 수거한 군용 텐트 및 낙하산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공급받은 불량 에어백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협업해 회수한 폐의료복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개발한 고강도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이다.

생산 과정에서 폐기된 에어백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가방은 에어백의 순간적인 팽창성과 수축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며, 현장에서 동일한 원단으로 제작한 빈백 소파를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소재에 대한 이해를 돕게 했다.

레코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 소재들이 기능을 다한 후에도 예술적, 사회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레코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FASHION

“시원한 옷 입을래” 패션업계, 냉감 전쟁 돌입

이상 기후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시장 진화

이상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패션업계의 냉감 소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표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컴포 테크'는 접촉 냉감성 나일론 소재를 적용해 몸에 닿는 즉시 시원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컴포 쿨'은 마이크로 에어닷 소재와 미세한 구멍이 있는 융용사 소재로 몸의 열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해 무더운 날씨에도 산뜻하고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한다.

K2는 냉감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원서커' 시리즈를 선보였으며, 블랙야크는 냉감 기능성에 항균 기술 (폴리진) 까지 접목한 여름 기능성 의류인 '아이스 프레쉬' 시리즈도 냉감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품질을 중시했던 골프웨어 브랜드도

냉감 의류를 적극 도입하며 길어진 여름 날씨에 대응하고 있다.

LF 닥스골프의 '인헤리턴스 라인'은 퍼포먼스 극대화를 위한 고기능성 소재를 사용하고, 통기성을 고려한 벤틸레이션 디테일과 부분적인 냉감 메쉬 패치로 장시간 착용에도 쾌적함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한성에프아이의 '레노마골프' 역시 올 상반기 냉감 상품 비중을 대폭 늘리며 이러한 트렌드에 합류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더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프리미엄 디자인에 기능성까지 갖춘 제품은 소비자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환경적 변화와 소비자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맞춘 제품 개발과 마케팅이 앞으로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섬유' 재도약을 위한 산업용섬유 얼라이언스 출범

첨단 산업용 섬유 신규품목 발굴, 기술개발 지원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플랫폼 가동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0일(화) 오후 4시, 서울 섬유센터 2층 텍스파 캠퍼스에서 '산업용 섬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산업용 섬유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는 백두현 충남대 명예교수, 윤성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 등 민·관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총괄위원회와 극한성능섬유, 첨단부직포, 산업용 친환경 섬유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간사기관으로 얼라이언스 운영을 지원한다.

얼라이언스는 산업용 섬유 소재·부품·완성품 등 공급기업, 자동차·의료·항공 등 수요기업, 섬유 전문 시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협업하여 유망 산업용 섬유 신규 품목 발굴 및 용도 확대,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우선 과제로 올해 말까지 수요산업 맞춤형 '첨단 섬유용 섬유 기술개발 로드맵' 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도레이첨단소재(주) 에서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 산업용 섬유 분야의 원료·소재·제품에 이르는 기업 간 협력 및 사업화 성공모델을 발표하였고, 향후 얼라이언스의 선과 창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산업부 윤성혁 첨단산업 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용 섬유는 우리 섬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 분야인 동시에 자동차,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고도화에도 긴요한 핵심소재"라고 강조하면서, "얼라이언스에서 논의되고 도출된 과제들이 정부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및 사진 출처

1. ZDNET Korea, 패션 스타트업도 AI에 폭 빠졌다, 25년 4월 27일
2. 매일경제, 이젠 속도보다 방향 착해진 '패스트패션', 25년 5월 09일
3. CNB뉴스, "AI로 프리뷰인서울 업체 화보 제작?"...섬산련, 라온버드와 협업, 25년 5월 26일
4. 세계일보, "폐기된 군용 낙하산·텐트가 원피스로"...코오롱FnC 레코드, 산업 폐소재 재해석한 전시 선보 [현장], 25년 5월 18일
5. 데일리안, "시원한 옷 입을래" 패션업계, 냉감 전쟁 돌입, 25년 05월 24일
6. 한국섬유신문, 'K-섬유'재도약을 위한 산업용섬유 얼라이언스 출범, 25년 05월 20일